

한국어 호칭의 특성; 사회언어학적 접근

강현자(계명대학교)

<Abstract>

Kang, Hyunja. 2005. The Characteristics of Address Terms in Korean: From a Sociolinguistic Point of View. *The Language and Culture* 1-2: 201-218. A address term in the Indo-European languages is, according to Brown / Gilman(1960) and Brown/Ford(1964), determined by the relation between power and solidarity of speaker and addressee. But, at the case of Korean language, speaker expresses more variously the relation to the addressee than the Indo-European languages (eg Title, Name, Second Person Pronouns, Kinship address terms etc.) And more criterions are applied to this use of the name than in the Indo-European because of social difference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essential determinant of the korean name (eg social status of addressee, age, sex, information of addressee, situation of dialogue) and to ask their meaning. (Keimyung University)

Keywords: address terms, relation between speaker and addressee, social significance

1. 머리말

호칭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며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 중의 하나이다. 순수 문법과는 달리 호칭을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호칭의 선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한국어에서 호칭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호칭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다양함과 복잡함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호칭은 문장의 종결어미에서 실현되는 경어법과도 공기하며 그 외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성과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호칭이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호칭에 대한 연구로는 고전으로 알려진 Brown과 Gilman(1960), Brown과 Ford의(1964)를 통해 호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방식과 언어를 초월한 호칭의 보편적인 속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인구어에서 호칭을 결정하는 변수는 힘(Power)과 유대감(Solidarity)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호칭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일까? 청자의 직위와 나이, 성별, 청자에 대한 정보, 담화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법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언어학 연구와 달리 직접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제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쫓지는 않는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어 호칭의 결정에 작용하는 요인들과 어떤 호칭어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호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2.1 ‘힘’과 ‘유대감’의 의미체계로서의 인칭대명사

Brown과 Gilman(1960)은 인칭대명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유럽 언어들의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방법적으로 Brown

과 Gilman(1960)은 인구어에서 나타나는 인칭대명사를 ‘T’와 ‘V’로 표현한다. 이들은 각각 라틴어의 ‘tu’와 ‘vos’에서 따온 것으로 독일어의 ‘du’와 ‘Sie’, 이탈리아어의 ‘tu’와 ‘Lei’, 불어의 ‘tu’와 ‘vous’ 등을 가리킨다. T는 일반적인 인칭대명사, 즉 평칭을 뜻하고, 복수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V는 공손함 혹은 거리감을 표현하는 인칭대명사로 경칭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과 Gilman(1960)은 인칭대명사를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관찰하였다. 수직관계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다른 인칭대명사를 사용함을 뜻한다. 이 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V로 불러야 하지만 스스로는 T로 칭해진다. 이는 ‘힘의 의미체계(Power Semantics)’로 불리워진다. 이에 반해 ‘유대감의 의미체계(Solidarity Semantics)’는 대화 참여자 간의 평등한 사용을 뜻한다. 이 때 화자와 청자는 T이든 V이든 동일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사용규칙은 아주 단순해서 상위자와 하위자는 서로 T와 V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상위자와 하위자끼리는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T혹은 V로 상대방을 부른다. 상위자들 간이라도 유대감이 있으면 서로 T로 대화하고, 하위자들이라도 유대감이 없으면 V로 대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중세 인구어의 인칭대명사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며 상위자와 하위자 간의 상호적인 T의 사용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중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인칭대명사의 사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T의 사용범위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가운데 유대감은 T와 V의 구별에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다시피 하였다. 다시 말해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인구어의 인칭대명사의 결정 기준이 ‘유대감’과 ‘거리감’이 되었다.

Brown과 Gilman(1960)은 이와 같은 결과를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출신 성분에 의한 계급이 힘을 결정하던 중세에서는 비상호적인 인칭대명사가 신분의 등급을 나타냈다면,

평등의식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유대감의 의미체계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 미국 영어에서의 호칭의 사용

그렇다면 이제 미국 영어의 호칭에 대해 알아보자. Brown과 Ford(1964)는 명사형 호칭, 즉 이름(first name: FN)과 성-직함(title with last name: TLN)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FN과 TLN의 두 가지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사용 형태들이 제시된다.

- ① FN의 상호사용
- ② TLN의 상호사용
- ③ FN과 TLN의 비상호사용

영어에서는 서로 FN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호 TLN은 친분관계가 생기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 TLN에서 FN으로 옮겨가는 것은 주로 나이가 더 많거나 직급이 더 높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단 FN으로 발전된 호칭은 특별한 경우¹⁾를 제외하고는 다시 TLN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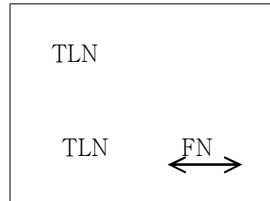
2.1에서 설명된 ‘힘’이나 ‘유대감’이란 용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FN과 TLN은 Brown과 Gilman(1960)의 인칭대명사에 대한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서로 T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FN도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LN은 서로 V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고 힘의 차이도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상위자와 하위자의 T와 V의 사용이 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서로 FN과 TLN을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1) 이 특별한 경우란 화자의 분노나 청자에 대한 질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억양이나 어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말 호칭에서도 성과 이름이 모두 불릴 때 청자가 긴장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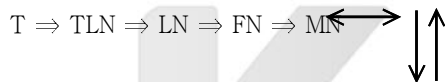
Brown과 Ford(1964)는 미국 영어의 호칭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표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호칭의 변화



즉, 처음 만난 두 사람의 담화 참여자는 서로 TLN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FN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상호 FN의 단계로 옮겨 가게 된다.

이 외에도 Brown과 Ford는 모든 미국 영어의 호칭을 등급별로 체계화하였다. 예를 들어 “장관님”, “교수님” 등의 T(Title)은 청자를 가장 존중하는 등급이며 TLN과 FN의 중간단계로 LN(Last Name)이 있고 가장 낮은 등급이자 친근한 형태의 MN(Multiple Name)이 있다. 이를 등급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호칭들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와도 비례한다. 왼쪽으로 갈수록 격식적이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친근하다. 즉 친밀도와 관련된 호칭의 전반적인 진전으로서 화자와 청자가 어떤 호칭으로 대화하는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도 있다. 서로 TLN을 사용한다면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라는 뜻이고, 서로 MN을 사용한다면 두 사람이 아주 가깝고 친근한 관계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호칭을 사용한다면 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동등한 호칭을 사용한다면 힘에 차이가 없거나 힘의 차이를 무시하기로 합의가 되었

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로 T로만 호칭하는 경우가 드물 듯이 가장 마지막의 MN 단계도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MN(Multiple Name)이란 한 사람의 청자에게 다양한 방식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T와 TLN, LN, FN, 별명이나 애칭을 섞어 사용하는 이 경우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가 아주 친근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패턴은 영어뿐 아니라 우리 말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평소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서 어떤 때는 직함으로 정중히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명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은 다소 장난 어린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상으로 인구어의 호칭이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구어의 호칭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 결정 기준은 ‘힘’과 ‘유대감’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어 호칭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3. 한국어에서의 호칭 선택의 기준

‘힘’과 ‘유대감’이라는 개념은 한국어 경어법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키워드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어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개념들만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양한 한국어 호칭의 등급들을 단지 이분화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 또한 현대 인구어에서 권력보다는 유대감의 정도로 호칭 사용을 결정하는 데 비해, 예전보다 그 폭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권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한국어 호칭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

2) 논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이익섭 1994: 209)은 호칭을 등급을 14단계까지 구분한다.

다.

황적륜(1990)은 Ervin-Tripp(1972)의 미국 영어 호칭의 흐름도³⁾에 기초하여 한국어 호칭을 결정하는 변인들을 연구하였다. 미국 영어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듯이 그 결정 변인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어 호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대략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황적륜의 흐름도에 제시되는 호칭은 20여 종으로 (LN)T+님, LNT, LN+선생님, LN+선생/Mr. LN, 사모님, 부인/아주머니, Miss. LN, 아가씨, 할머니, T+님, 선생님, 영감님, 아저씨, 호칭생략 혹은 그와 유사한 변이형태, 자녀이름+친족명칭, FN(이), FN+아/야, 학생, 총각, 아가씨, 야/애 등이다. 그리고 이 호칭들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자의 이름: 똑같이 직위가 표시되는 호칭이라도 청자의 이름을 알 때와 모를 때 호칭이 달라지며 이름 호칭이 대표적이다.
- ② 청자의 지위(청자가 여성이라면 남편의 지위): 화자와의 관계에서 상위직의 청자에게 T+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 ③ 화자와의 나이 차: 고려되어야 할 나이차는 3살이다.
- ④ 청자가 속한 세대: 화자와의 나이차뿐 아니라 청자가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조부모 세대인지 혹은 부모세대인지가 중요하다.
- ⑤ 성별: 호칭의 다양함과 비례해서 여성 청자에 대한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다.
- ⑥ 결혼여부: 결혼한 여성 청자에 대한 호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⑦ 자녀의 이름+친족명칭: 청자가 자녀가 있는 부모세대라면 자녀의 이름에 친족명을 덧붙여 부르는 방식도 한국어 호칭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Ervin-Tripp(1972)은 미국 영어의 호칭 구조를 호칭의 결정 요인을 기준으로 흐름도로 표현한 바 있다. 성인인 화자가 청자의 이름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 청자의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 청자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선택 과정을 거쳐서 청자에게 적절한 호칭을 결정해 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흐름도는 호칭의 결정에 어떤 사회적 항목이 관여하며 그것들의 우선 순위가 어떤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언어들의 호칭 체계도에 응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호칭의 결정 기준들을 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 성별, 이름 등이 기준으로 작용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청자의 이름 혹은 청자의 자녀의 이름은 달리 말하면 청자에 대한 정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한국어에서 호칭의 사용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와 대화 상황에 따라 몹시 가변적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한국어 호칭의 선택기준을 크게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청자의 사회적 지위
- ② 청자의 나이
- ③ 청자의 성별
- ④ 청자에 대한 정보
- ⑤ 대화 상황

그러나 황적륜에 의해 분석된 호칭만을 분류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호칭들이 시류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Mr.나 Miss 등) 분명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제외된 것도 있어서(2인칭 대명사와 이름+님/씨 등) 그 폭을 넓혀 이익섭(1994)이 제시한 성명과 직함 호칭, 2인칭 대명사 호칭, 친족 호칭어 등을 두루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K C I

<표 2> 한국어 호칭의 종류⁴⁾

이름 호칭	직함 호칭	2인칭 대명사	친족 호칭
성-이름+님 (성)-이름+씨 성+씨 성-이름+군/양 이름(이) 이름아/야	성(이름)+직함+님 성(이름)+직함 성(이름)+선생님	당신 자네 자기 너 님	할아버지/할머니 아저씨/아주머니 아가씨 삼촌/이모 언니/오빠

3.1 청자의 사회적 지위

출생에 의한 신분제가 무너진 현대에도 청자의 사회적 지위는 호칭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호칭의 결정에서 지위는 ‘나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 항목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연상의 청자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는 당사자의 평소 성격이나 가치관, 청자와의 친분관계, 대화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대의 이사와 60대의 건물 관리인의 대화를 가정해 보자. 이사가 관리인에게 ‘아저씨’ 혹은 ‘김씨 아저씨’를 사용하겠지만 청소부는 이사에게 한국어 호칭어의 단계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직함, 즉 ‘이사님’으로 부르는 장면을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유사한 현상은 결혼한 여자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는데, 남편의 지위에 따라 ‘사모님’도 되고 ‘아줌마’도 되는 게 현실이다.

청자의 사회적 지위란 화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와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청자가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도 해당되며 이 경우 가장 대표적인 호칭의 종류는 직함이다. 직함

4) 2인칭 대명사는 논자에 따라 “어르신”과 “택”을 포함시켜 6등급으로까지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는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이 어휘들 대신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님”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을 부르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함+님’으로 청자를 부르는 경우가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이 가장 강하지만 청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구별을 위해서 ‘성-(이름)직함+님’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직함 호칭어에서는 호칭접미사 ‘님’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아주 큰 폭으로 변한다. 청자가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있으며 연하인 경우 경우에만 ‘님’ 없이 직함만으로 호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님’은 청자가 결혼한 여성일 때 남편의 위치를 고려하여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지위에 따른 호칭의 등급은 우선 친족어나 이름 등의 지위 표시 기능이 없는 호칭들과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하위의 지위에 있는 청자에게 비하의 느낌을 주는 호칭도 있음을 시사한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종업원들에게 사용하는 ‘어이’, ‘이봐’ 등의 반말투의 호칭은 청자가 사회적으로 낮은 등급이라는 인상을 주는 호칭으로 알려져 있다.⁵⁾ 또한 ‘김씨’나 ‘이씨’처럼 성 다음에 접미사 ‘씨’를 붙여 부르는 방식도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임을 암시한다.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직함+님, 사모님
-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 직함, 성+씨, 여기, 이봐 등

3.2 나이

한국어 호칭에 있어서 두 번째 기준으로 ‘나이’를 들 수 있다. 이때 ‘나이’는 청자가 속한 세대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화자와 청자

5) 강희숙(2002)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계 종업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호칭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은 ‘이봐’, ‘어이’,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 등이다. 이 사실은 이들 호칭이 청자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의 나이차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통칭으로 사용하는 친족어가 전자의 기준을 따른다면 2인칭 대명사 호칭과 이름 호칭어가 후자에 속한다. 황적륜(1990)은 이름을 부르기 곤란한 나이 차이를 대략 세 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 대학교와 같은 곳에서는 1년 차이도 엄격하게 지켜진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긴밀히 유지되는 조직일수록 나이가 호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뚜렷한 직급이 없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연장자를 ‘언니’나 ‘선배님’으로 호칭한다든지⁶⁾ 대학에서 선배에게 모두 친족어 혹은 이름+친족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김진명 2001: 203 참조).

한국어의 호칭이 나이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동일한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도 청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로 ‘이름+아/야’로 부르던 사이라도 장년이 되면 ‘자네’ 혹은 ‘직함’으로 호칭을 교체하고, 자식이라도 결혼하여 자녀를 두게 되면 ‘애비야 (아범아)’ 혹은 ‘에미야(어멈아)’ 등의 호칭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연상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으로는 친족어가 대표적이다. 화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직접 호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언니, 오빠, 누나, 형’ 등의 호칭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⁷⁾

친족어는 청자의 나이를 짐작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서비스업 (미용실, 주점, 식당, 쇼핑몰 등)에서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는 ‘언니’와 연인들 사이의 ‘오빠’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6) 김미정(1995)에 의한 직장 — 구체적으로 은행 — 에서 사용되는 우리말과 일본어의 호칭어를 비교한 논문을 보면, 우리말의 경우 사용되는 호칭어의 종류는 모두 11개로, 일본의 6개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되는 숫자이다. 이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의식을 반영한다.

7) 청자를 기준으로 그가 속한 세대에 어울리게 간접 호칭하는 경우 화자와 청자의 실제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청자가 속한 세대가 중요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언니’는 청자의 나이가 화자의 언니 쯤 되어 보이거나, 동생이 있음직한 나이의 여성 청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지만 최근에는 그 사용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종업원에게도 언니라고 부르며, 남자 화자가 여자 청자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한다.⁸⁾ 여자 화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에게 사용하던 ‘오빠’ 또한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성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되다가 결혼한 젊은 커플 사이에서는 ‘자기’를 대체하는 호칭어로 확산되고 있다. 동년배 혹은 연하의 청자에게 2인칭 대명사와 이름 호칭어가 널리 사용된다. 앞서 제시한 모든 2인칭 대명사 호칭과 이름 호칭어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보통 높임의 등급으로 ‘너’나 ‘자네’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등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당신’은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⁹⁾. 한국말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의 호칭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나이 들어 사귄 허물없는 친구 사이에서 반말체와 어울려 사용하기에 무난한 표현이다.

‘자기’는 흔히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호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3인칭 재귀대명사의 구실을 한다. 최근 들어 여성들 사이에서 연하의 친근한 청자에게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3.3 참고).

자네는 하계체와 함께 성인이 된 청자를 대우하는 호칭이다. 직함으로 호칭하는 것보다는 좀 가깝고 이름을 부르기엔 어색한 사이에서 이 호칭이 사용된다. ‘자네’는 청자뿐 아니라 화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는 호칭인데, 보통 ‘자네’라는 호칭을 듣게 되는 나이는 대학생 이상이며, 어렸을 때 ‘너’와 함께 반말을 사용하던 사이라도 중년으로 접어들면 ‘자네’의 단계로 옮겨가는

8) 강희숙(2002)은 이를 서비스업 중에서도 손님과 종업원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미용실이나 주점 등지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9) 이익섭(2001: 204)은 이때 ‘당신’을 ‘시비용’으로 표현한다.

경우가 많다.

인칭대명사 ‘너’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하거나, 청자와 화자가 어렸을 때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 사용한다. 너는 가까운 친구 사이이거나 어린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나 친구 사이의 호칭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 혹은 학창시절부터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만난 사이라면 ‘너’의 단계로 옮겨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름 호칭어는 여러 가지 호칭접미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미사의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표 3> 이름 호칭어의 종류

성-이름+님	김대복 님
(성)이름+씨	(김)대복 씨
(성)이름+군/양	(김)대복 군
(성)이름(이)	(김)대복이
이름+아/야	대복아

‘님’은 원래 직함이나 직급 뒤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고유명사 즉 이름 뒤에도 접미사처럼 사용된다. ‘씨’와는 달리 “김대복 님”에서처럼 반드시 성-이름 뒤에만 온다는 특성이 있으며 ‘씨’보다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접미사로 사용된다. 최근 들어 병원이나 약국 등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호칭법을 이정복(2000)은 호칭에 대한 인플레이 현상으로서 ‘씨’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씨’는 성, 이름, 성-이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의 호칭은 상대방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표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윗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동료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후배에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똑같이 ‘씨’가

불더라도 ‘성-이름 씨’(예, 김대복 씨)는 ‘이름-씨’(예, 대복 씨)보다 심리적인 거리감과 격식의 표현 기능이 강하다. 예를 들어 ‘김대복 씨’라고 할 때와 ‘대복 씨’라고 할 때 그 어감은 사뭇 다르다.

‘군’이나 ‘양’은 청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호칭은 늘 비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남자 청자에게는 ‘군’을 여자 청자에게 ‘양’을 붙이지만 최근에는 여자 청자에게도 ‘군’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네’와 마찬가지로 얼마간은 중성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아/야’와는 달리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조심스럽고 소원한 관계임을 암시한다. 이름 혹은 성-이름이 모두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름의 형태보다는 성-이름의 형태를 많이 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혹은 주의를 집중시킬 때 자주 사용한다.

- 연상의 청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언니, 오빠 등의 친족어
- 동년배 혹은 연하의 청자에게: 2인칭 대명사, 이름 호칭어

3.3 성별

한국어의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는 데 비례하여 남녀를 구별하는 호칭 또한 인구어에 비해 현저히 많을 수밖에 없다. 호칭에 여성성을 띠는 것으로 ‘할머니’, ‘아주머니’, ‘사모님’, ‘아가씨’, ‘언니’ 등 통칭으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가 있고, 이름 뒤에 오는 접미사 ‘양’이나 최근 들어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자기’도 청자가 여성임을 뜻하는 것들이다. 박정운·채서영(1999)에 의하면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쓸 수 있는 자기”는 2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동갑이거나 나이가 어린 청자에게,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호칭은 청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화자의 성별도 표시된다는 점에서 인구어와의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언니’와 ‘오빠’는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 사용되며, ‘형’과 ‘누나’는 남성인 경우에 사용된다. 80년대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대학가에서 여학생이 남자 선배를 가리켜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행했고, 최근 서비스업종에서 남자 손님이 종업원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원래는 화자의 성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인칭대명사 ‘자네’가 주로 남자들 사이에서 사용된다면 ‘자기’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

- 남자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 할아버지, 아저씨, 총각
- 남자 화자가 사용하는 호칭: 형, 누나
- 남성 중심으로 사용되는 호칭: 자네
- 여자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 할머니, 아주머니, 아가씨, 사모님¹⁰⁾
- 여자 화자가 사용하는 호칭: 언니, 오빠
- 여성 중심으로 사용되는 호칭: 자기

3.4 청자의 신상 정보

한국어의 호칭은 이미 청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암시한다. 수많은 직함과 직급, 친족어 또는 기타 명사형 호칭어들이 청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청자를 적절하게 부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이름 외에도 출신 학교, 직업, 직장에서의 지위, 나이, 결혼 여부, 아이의 이름 등 수없이 많다.

이름만 알 때엔 비슷한 연배라고 짐작해서 청자를 이름+씨로 불렀다면 청자의 나이가 본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기는 어색하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라고 알고 있

10)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뒷사람의 부인을 ‘사모님’이라 부르는 것에 대칭되는 ‘사부님’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사부님’은 아직은 지칭어로만 사용되고 실제 대화에서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있을 때와 그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아저씨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칭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그의 외모를 보고 어림잡아 나이를 짐작하고 그 나이에 걸맞은 통칭으로서의 친족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통칭적 호칭어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면 계속해서 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실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에 사용하는 호칭이 친근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칭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칭으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라도 직함이나 신분을 알게 되면 칭자의 신분에 걸맞은 호칭으로 교체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칭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호칭으로는 직함과 모든 종류의 이름 호칭들(3.1 참조)이 있다. 칭자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칭으로 분류되는 호칭들이다. 통칭은 다시 직함 호칭어와 친족 호칭어(3.2 참조)로 나눌 수 있다.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등 직함 호칭어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통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교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던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인을 가리키던 ‘사모님’, 회사 책임자인 ‘사장님’이 칭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사용된다. 이는 칭자를 높여 부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칭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호칭으로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님’이 있다. 원래는 직위 또는 직책이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상대방을 높이는 접미사로 사용되던 ‘님’은 최근 이름 뒤에도 빈번히 사용되며, 통신언어에서는 단독으로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비록 통신 공간 내에서는 제약이 있지만 인칭대명사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호칭어라는 이유에서 이정복(2000)은 ‘님’을 대명사로 보고 있다.

이 ‘님’의 성격은 ‘비친밀성’과 ‘익명성’이다. 동호회 구성원들과 서로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진 경우나, 실제적인 만남이 있거나, 서로에 대해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우호적인 성격의 대화방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님’은 1음절의 단어로 통신언어의 필수 조건인 경제성의 원리에 잘 부합한다. ‘님’은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사용 빈도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 청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성-이름)+직함(님), (성-이름)+선생님, 이름 호칭, 아이이름+ 친족어
- 청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등의 통칭어와 친족어

3.5 대화 상황

한국어의 호칭은 두 담화 참여자의 대화 장소가 사적인 공간인가 혹은 공적인가, 혹은 두 사람이외에 제3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동일한 청자에게 사용되는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호칭의 가변성은 한 담화 안에서 혹은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는 화자의 기분 등 극히 개인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¹¹⁾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언제나 하나의 관계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관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도 토론이나 회의석상에서는 이름보다는 ‘성-이름+씨’이나 ‘성-이름+직함’이 적절한 호칭어이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송영(2002)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송영은 동일한 담화에서 동일한 청자에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동일한 이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관계로서 어떠한 호칭이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 또한 두 사람 이외에 제3자가 있는 대화 상황에서도 그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통예법에서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시부모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자녀 앞에서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권장해 왔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인 동시에 제3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기도 하다.

친족호칭이나 이름(FN), 인칭대명사 ‘너’, ‘당신’ ‘자기’ 등은 사적인 대화 상황에서, 직함이나 성-이름+님 혹은 성-이름+님씨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호칭어들이다. 사적인 대화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 호칭은 주로 화자와 청자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경우에 친밀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들이다. 인칭대명사 ‘너’ 혹은 ‘자기’, ‘이름-아/야’ 등이 대표적이며, 친족 관계를 표현하는 친족어, 이외에도 연하 혹은 동년배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호칭들이 여기에 속한다.

동일한 청자에 대한 호칭이라 해도 상황에 의한 두 사람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친인척 관계로 맺어진 두 담화 참여자가 회사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 직함을 사용한다면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호칭으로 교체될 수 있다.

- 공식적인 상황: 직함, 성-이름+씨, 성-이름+님 등
- 사적인 상황: 이름, 너, 친족 호칭어 등

4. 맺음말

지금까지 호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방식과 한국어 호칭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칭은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인구어의 호칭에서 ‘힘’과 ‘유대감’의 정도가 표현된다면 한국어의 호칭을 통해

더 다양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표현된다.

한국어 호칭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은 청자의 지위와 화자와 청자의 나이, 성별, 청자에 대한 정보, 대화 상황이다. 이들 다섯 가지 기준에서 볼 때 한국어 호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호칭에서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지위에 민감한 호칭으로는 직함 호칭어가 가장 대표적이다.
- ② 청자의 나이는 물론 화자와 청자의 나이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③ 한국어 호칭은 성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것이 많으며 청자의 성별뿐 아니라 화자의 성별이 표시되는 것도 있다.
- ④ 수많은 호칭이 청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이름 외에도 직급이나 나이 결혼 여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 ⑤ 공적인 상황이나 제3자가 있는 담화 상황에서는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실제 우리가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세세한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단체에 따라 지방에 따라 집안에 따라 그 사회 내에서 통용되며 권장되는 호칭이 있을 것이고 화자가 청자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에 따라 개인차도 있을 것이다. ‘새파란’ 처녀가 중년 남성에게 ‘오빠’라고 한들, 또는 머리가 희끗한 초로의 신사가 음식점에서 ‘언니’를 부른들, 화자가 원하고 청자가 용납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호칭의 그런 특수성은 어찌면 일정한 규칙이나 틀로 묶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다면 위의 다섯 가지가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한다. 이들의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호칭이 서술어의 말 단계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다루어져서는 제대로 의미가 파악될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경어법의 체계 내에서 호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숙(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0권 1호, 1-24.
- 김미정(1995), “한일 양국의 호칭어에 관한 고찰”, 『일본학보』 35, 111-126.
- 김진명(2001), “몇 개의 언어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호칭행위의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199-221.
- 김희숙(2003), “현대한국어 호칭어의 역설: 2차 사회 내 늘어나는 친족어사용”, 『사회언어학』 11권 1호, 55-93.
-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의 체계”, 『사회언어학』 5권 2호, 507-527.
- 박정운 · 채서영(1999), “2인칭 대명사 자기의 발달과 사용”, 『사회언어학』 7권 1호, 151-178.
- 왕한석(2000), “언어생활의 특성과 변화”, 『사회언어학』 8권 1호, 59-86.
- 유송영(2001), “두 남녀 사이의 ‘친밀성(intimacy)’의 증가에 따른 호칭 · 지칭어의 교체 사용과 요인간의 우선순위”, 『사회언어학』 9권 2호, 97-118.
- _____(2002), ‘호칭 · 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화자-청자’의 관계, 『한국어학』 제15집, 121-142.
- 이정복(2000), “통신 언어로서의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권 2호, 193-221.
- 한영목(1992), 『언어와 사회』.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 Brown, R., Ford, M.(1964), *Address in American English*, I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234-244.
- Brown, R., Gilman, A.(1960), *Die Pronomen der Macht und Solidaritaet*, In: Wenzel, U./Hartig, M.(1997), *Sprache-Persoenlichkeit-Sozialstruktur*, 245-270.
- Fasold, R.(1990),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황적륜 외(1994) 번역, 『사회언어학』.
- Ervin-Trip, S. M.(1972), *Sociolinguistic Rules of Address*, *Sociolinguistics*, New York-London, 225-240.
- Hwang, Juck-Ryoon(1990),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Berlin-New York, 41-55.
- Wang, Hahn-Sok(1990), *Toward a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 of Korean speech level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82, Berlin-New York, 25-39.

강현자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

701-704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전자우편 : hjkang@kmu.ac.kr

K C I